

도서관 이용안내

구 분	이 용 시 간
일반자료실, 아동자료실, 디지털자료실	09:00~18:00
자료열람실	08:00~22:00

▶ 휴관일

매주 월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법정공휴일 (단, 일요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는 휴관)

▶ 관외대출회원가입 안내

가 입 대 상 | 경상북도 거주자 및 영양군 소재 직장(학교)에 재직(재학) 중인 자

가 입 방 법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지참하여 관외대출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회원 등록

▶ 관외대출회원가입 안내

대 출 자 료 | 도서 1인 5권 이내, DVD 1인 1점

대 출 기 간 | 도서 14일, DVD 7일

참 고 사 항 | 가족회원의 경우 다른 가족의 도서 대출 가능
자료 분실 및 훼손시 동일자료로 변상

▶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http://dovol.youth.go.kr/dovol/index.do>)

신 청 방 법 | 청소년자원봉사 사이트에 회원가입 후 신청

활 동 시 간 | 매일 오후 01:00~03:00 (단, 도서관 휴관일 제외)

참 고 사 항 | 봉사활동 확인서는 청소년자원봉사 사이트에서 직접 발급 가능



주소 경북 영양군 영양읍 팔수로 538번지
전화 (054)683-2829 팩스 (054)683-1718

고비

2013 제3호

경상북도립영양공공도서관 소식지

희망을
꿈꾸게 하는 곳,
여기는
도서관입니다.

고비란 간찰, 편지 같은 것을 꽃아 두는 물건. 우리 도서관은 소식지 '고비'를 통해 앞으로 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추억들을 하나하나 엮어 갈 생각이다.

| CONTENTS |

- 02 놀품어린이독서회원 글마당
- 03 독서칼럼
- 04 도서관행사마당
- 06 평생교육마당
- 07 도서추천
- 08 도서관 이용안내

거 지

거지야 너는 돈이 있니
거지야 너는 집이 있니
거지야 너는 친구가 있니

나도 없으니
너도 없겠네
우리 친구하자

김은지 | 늘품어린이독서회원

고 슴 도 치

엄마 고슴도치
아기 고슴도치
같이 먹이 찾으러 다니네

밥 먹을 때도,
잘 때도,
언제나 같이 있네

가족이란
언제나 힘이 되어주는 존재

이승민 | 늘품어린이독서회원



타자관계에는 지나치게 민감하지만 그에 비해 자기관계에는 둔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처세의 방법은, 더도 덜도 말고 딱 남들이 하는 것만큼 행동하기이다. 노명우, <혼자 산다는 것에 대하여>



책은 거울이다

한미화(출판칼럼니스트)

아이가 중학교에 들어간 후 설레는 마음으로 갔던 첫 학부모 참관수업은 참으로 당혹스러웠다. 내가 학교에 다니던 시절과 비교하는 건 무리가 있겠지만 그래도 학부모가 오는 참관수업이지 않은가. 아이들이 좀 긴장을 하리라 기대했건만 엎드려 자는 아이, 무기력하게 딴 생각하는 아이, 책도 노트도 없는 아이가 교실에 흔했다. 엄마들 사이에서는 참관수업을 두고 “들어 가봤자 속만 상해서 안 간다”는 말이 예사로 나온다.

반면 학교에서 엄마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소강당을 가득 메운 엄마들이 숨을 죽이며 강의를 경청한다. 대입 설명회가 끝날 즈음 한 엄마가 “혹시 이런 내용을 아이들도 알고 있나요?”하며 질문을 했다. 이렇게 중요한 정보를 아이가 들어야 하는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도 아이는 쳐다보지도 않는다면 엄마는 울먹였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는 늘 우리 아이들이 책이라도 읽는다면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든다. 공부할 시간도 없는데 왜 책이냐고 하겠지만, 사실 입시위주의 학교 교육에서 많은 아이들이 낙오한다. 하지만 입시라는 괴물과 맞닥뜨리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이들은 자신이 낙오자라는 걸 인정하지 못한다. 오히려 공부에 초연한 듯 수업시간에 떠돌고, 그 까짓 공부나 대학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친구들과 뒷골목을 몰려다닌다. 그럴수록 부모들의 뉘달은 심하다. 엄마는 입만 열면 공부와 성적과 학원 소리를 하니 그 어떤 아이인들 부모와 말을 하고 싶으랴. 기껏 게임과 담배와 또래집단에 몰두하며 삶을 소모할 뿐이다.

하지만 아이들이 책을 읽는다면, 지금 당장은 좋은 대학에 못 갈 수도 있고, 자신이 처한 환경이 바뀌지 않을지 몰라도, 적어도 자신을 돌아보고 지금과는 다른 나를 꿈꿀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이 책이 가진 놀라운 자아성찰의 효과다. 그래서 책을 읽는 사람은 꿈을 꾀다. 체 게바라 같은 혁명가가 전선에 뛰어들어에서도 책을 손에 놓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다. 아무리 가난하고 환경이 어렵고 현재의 삶이 비루해도 책을 읽는 습관을 지니고 있다면 결코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다. 많은 어른들이 책을 통해 이런 치유와 성찰을 경험했다. 애니메이션으로도 만들어진 동화 <마당을 나온 암탉>을 쓴 황선미 선생은 집안이 가난해 중학교에 가지 못했다(이후 야간학교를 다녔고 대학을 졸업했다). 겨우 열네 살밖에 되지 않은 소녀에게 친구들이 모두 공부하고 있을 그 대낮이 얼마나 치욕스럽고 수치스러웠겠는가. 그 절망스러운 시간 소녀는 책을 읽었다. 만약 그때 책을 읽지 않았다면 소녀는 작가가 아니라 아직도 삶을 부끄러워하며 살고 있을지 모른다.

책읽기는 여러 장점이 있다. 내가 어릴 때는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교양과 지식을 습득하려면 책을 읽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렇게 너무나 미미한 미래에 대한 불안에 떨며 경쟁에서 도태될까봐 두려워하는 우리에게는 다른 이유가 필요하다. 치유의 기능이다. 흔히 정신과 의사에게 상담하는 것만이 정신과 치료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책을 읽을 때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떠나 저자와 직접적으로 만난다. 소설 속의 주인공에게 감정을 이입하기도 한다. 그때 우리가 지닌 외로움과 슬픔과 불안을 책에서 만날 수 있다. 내가 겪은 삶 전체가 투명하게 보일 때도 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 대하고 인정해야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책이 이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책은 나를 비추는 거울이다.

나는 오랜 동안 열등감에 시달리면서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했고, 쓸데없는 자존심은 세지만 정작 중요한 자기존중감은 턱없이 낮은 사람이었다. 사는 게 왜 이렇게 힘이든가 싶어 울 때도 많았다. 이 세상에 나 혼자뿐이라는 엄청난 상실감의 정체를 확인한 것은 책을 통해서였다. 나는 책을 읽으며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깨달았고, 나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지금도 여전히 내 안의 문제는 남았지만 적어도 어제보다는 나은 사람이 되고 있다고 믿는다.

누구에게든 책을 읽으라고 강요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 다만 슬프고 외롭고 힘이 들 때 친구가 필요하다면 책이 내게 들려주는 말에 귀 기울여 보라는 말만은 꼭 해주고 싶다.

출처: <http://www.nlcy.go.kr:8089/column/>(청소년을 위한 독서칼럼)

도서관 행사 마당



제49회 도서관주간

제49회 도서관주간 행사는 '힐링이 필요한 순간, 도서관이 함께 합니다'라는 주제로 4월 12일(금)에서 18일(목)까지 개최되었다. 도서전시회 '형아랑 동생이랑 함께 보는 감성 입체북',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힐링독서퀴즈', 인형극 '팔죽 할머니와 호랑이', 주간이벤트 '포춘 쿠키 & 힐링북' 등 다채로운 내용으로 채워졌다.



늘품어린이독서회 운영

우리 도서관은 올해 초등 3~5학년을 대상으로 어린이독서회를 창단했다. 독서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늘품어린이독서회'라 명명하고, 매월 세 번째 주 토요일 오전에 독서모임을 가졌다. 3월부터 12월까지 총 9회를 진행했다. 매달 선정된 도서를 함께 읽고 관련 독후활동을 함으로써, 회원의 바람직한 독서생활을 형성하고 도서관 이용을 증진시키고자 하였다.



영양공공도서관 환경 개선

이용자에게 편리한 열람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낮은 열람대 및 의자를 폐기하고 새로 구비하였다. 또한, 우리도서관의 쾌적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5월 7일부터 6월 말까지 약 2개월간 낙후한 화장실을 개축하였다.

9월 독서의 달 2013년 독서의 달을 맞이하여 다독자 표창, 도서관 퀴즈, 원화 전시회, 양말인형 만들기 체험, 청소년 추천도서 전시회, 인형극 등의 다양한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명	기간	대상	내용
다독자 표창	9.25(수)	관외대출회원	어린이, 중고생, 일반인 각 2명씩 선정
도서관 퀴즈	9.6(금)~26(목)	도서관이용자	도서관 퀴즈를 풀고 응모 후 추첨을 통해 상품 수여
원화 전시회	9.3(화)~17(화)	도서관이용자	'길로 길로 가다가' 원화 전시
인형극	9.12(목)	유치원생	'소가 된 게으름뱅이' 공연
엄마랑 아가랑 양말인형 만들기	9.14(토)	엄마와 자녀	엄마와 아기가 함께 양말 인형 만들기 체험
청소년 추천도서 전시회	9.10(화)~29(일)	도서관이용자	청소년 도서 30권과 서평을 전시

예의는 어떤 사람과 가까워지고자 할 때나 멀리하고자 할 때 모두 이용
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데이비드 리스먼, <고독한 군중>

영양책사랑 축제 '책으로 이끌림, 미래로 두드림(Do dream)'

2013년 11월 12일(화) 영양초등학교 강당에서 진행된 이 행사는 영양교육청 주관으로 영양관내 초·중등학교, 영양도서관이 함께 참가하였다. 영양도서관은 관내 초등 6학년생 및 중 1학년생을 대상으로 '우드펜스를 이용한 나만의 나무 수첩 만들기 체험'을 했다.



영양과학 축전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궁리하라! 상상하라!'

영양군내 초 중등학교 및 유관기관이 함께한 2013 빅뱅! 영양과학 축전이 2013년 6월 5일(수)에 개막하였다. 영양군민회관에서 진행된 이 행사는 학생들이 스스로 과학 탐구 과제를 해결하여 과학적 흥미를 돋우고자 하였다. 우리도서관은 별자리 신화를 전시하고, 관련 주제로 독서 퀴즈를 운영하였으며, 광섬유 탄생 별자리 만들기 체험을 했다.



여름독서교실 운영 '내 마음을 치유하는 힐링독서'

관내 초등학교 3,4학년 30명 정도를 대상으로 7월 30일(화)부터 8월 2일(금)까지 4일간 진행되었다. 수업을 하기에 앞서 그림책 읽어주기를 통해 학생들의 독서 흥미를 고취하고 '너와 나의 힐링북', '들키고 싶었던 나의 비밀', '그 때의 나, 한 권의 책' 등의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독서 활동 영역을 확장하고자 하였다.



DVD 관외대출 실시

우리도서관은 자료 이용 범위를 확대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2013년 4월 1일부터 DVD 관외대출을 실시하였다. (대출기간: 7일 / 대출허용: 1인 1회 1점) 본인 명의로만 관외대출이 가능하며 전체 이용자료 권수를 초과할 수 없다. 이용빈도를 고려하여 최신 DVD는 대출이 불가능하고, 자료의 파손, 훼손을 우려하여 초등학교생 이하 어린이에게는 관외대출을 허용하지 않았다.

제1회 경상북도 평생학습박람회 (2013 구미)

2013년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구미에서 제1회 경상북도 평생학습박람회가 개최되었다. '배움의 기쁨, 행복한 인생, 건강한 미래'를 주제로 경북에 소재한 약 100여개의 기관 및 단체가 참가하여 지역민에게 평생학습을 안내하고 관련 사업을 홍보하였다. 우리도서관은 '민화(民話) 차향기와 만나다'를 주제로 작품전시 경연대회에 참가하였다.



평생교육 마당

▶ 평생교육강좌 운영

지역주민들의 자아계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평생교육 강좌를 연중 운영 중이다.

상반기 평생교육강좌

강좌명	대상	운영기간 및 일시
생활민화	일반인	3.12~6.18 10:00~12:00 (매주 화요일)
풍수지리	일반인	3.13~6.19 19:00~21:00 (매주 수요일)
그림책이랑 나랑	유아	3.16~6.22 09:30~11:30 (매주 토요일)
스토리텔링수학	초등 1,2학년	3.16~6.22 13:00~15:00 (매주 토요일)

여름방학특강

강좌명	대상	운영기간 및 일시
로봇과학	초등 1,2학년	8.6~8.16 10:00~12:00
스토리텔링수학	초등 3,4학년	8.6~8.16 13:00~15:00

하반기 평생교육강좌

강좌명	대상	운영기간 및 일시
동화 속으로 풍덩	유아	9.14~12.14 09:30~11:30 (매주 토요일)
로봇과학	초등 전학년	9.14~12.14 10:00~12:00 (매주 토요일)
창의력 쑥쑥 어린이 요리교실	초등 전학년	9.14~12.14 14:00~17:00 (매주 토요일)
생활민화	일반인	9.10~12.10 10:00~12:00 (매주 화요일)
풍수지리	일반인	9.10~12.10 19:00~21:00 (매주 화요일)
(다문화 가족을 위한)컬트	다문화 이주여성	9.12~12.12 10:00~12:00 (매주 목요일)



문제 앞에서 허둥대며 수선만 편다면 여태까지 그의 독서는 죽은 독서다. 상황 속에서 비로소 위력을 발휘해야 제대로 한 독서다. 정민 〈오직 독서뿐〉

추천 도서 READING LIST



신문지로 만든 정글

크리스티안 두다 글, 올리아 프리제 그림 | 청어람, 2013

나는 학교에서 돌아옵니다. 텔레비전 앞에 앉은 엄마 아빠는 나를 보지도 않은 채 아는 척을 합니다. “이제 오니?” 텔레비전은 혼자 조용히 떠돌고 있네요. 나는 내 방에 들어와 신문지를 보면서 정글 탐험을 시작합니다. 부모님은 신문지 정글에서 사마귀가 되어 놓고 있는 나를 이해하지 못해요. 엄마 아빠와 함께 정글 세상에서 노는 방법은 없을까요?



자질구레 신문

김현수 글, 홍선주 그림 | 2013

어린이들의 삶은 어른들의 생각보다 훨씬 힘겹다. 「자질구레 신문」의 육이는 꿈이 무엇이든 ‘정규직’이 목표이고 「불사신」의 필구와 엄마는 철거촌이 된 동네에서 마음 편히 누울 곳도 없는 처지다. 「통 노래」의 경이는 치매 할머니를 돌봐야 한다. 어린이가 짊어져야 할 삶의 무게는 만만치 않다. 고된 일상과 불투명한 미래에도 불구하고 씩씩하게 걸어가는 주인공들을 만나보자.



뭘 해도 괜찮아

이남석 지음 | 사계절, 2012

‘아, 뭘 해서 먹고살지 생각하면 한심하기만 하네. 왜 나는 이렇게 사는 걸까?’ 주인공 태섭이는 무기력하다. 자신이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것도 모르겠고, 진로에 대한 고민도 항상 제자리를 맴돌 뿐이다. 우리나라 중·고등학생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이 책은 청소년들의 상황과 현실을 형상화한 소설이면서도 ‘생각의 징검다리’란 코너를 통해 청소년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엄마, 일단 가고봅시다!

태원준 글·사진 | 북로그컴퍼니, 2013

누군가와 함께 세계여행을 한다면 그 ‘누군가’를 엄마로 생각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환갑의 엄마와 반절 환갑인 아들의 장장 300일간 세계일주. 여행을 통해 누군가의 엄마, 아내, 딸이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볼릴 기회를 얻어 행복하다는 엄마.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일이 막 궁금하다는 엄마의 한 마디가 애뜻하다. 중국, 동남아시아, 중동 여행은 『엄마, 일단 가고봅시다!』에, 유럽 여행은 『엄마, 결국은 해피엔딩이야!』에 엮였다.